참여정부 신활력사업으로
농촌이 강해집니다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2006. 9. 22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고순서

I. 추진배경

II. 사업 추진 현황

III. 사업성과의 중간점검

IV. 향후 발전과제

Ⅰ. 추진배경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

- 젊은 인력의 도시유출
- 고소득 산업기반 취약
-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기반 부족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한계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 H/W위주의 부처별 개별 사업
- 중복 분산 투자로 효율성 미흡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 주5일 근무, 교통/통신 발달
- 여가, 웰빙 등 삶의 질 중시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 시급

II. 사업 추진 현황

정 책 비 전

II. 사업 추진 현황

추 진 전 략

지역주도적 사업추진

- 지방은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집행
- 중앙정부는 컨설팅/평가/재정 지원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 구축

- ASP모델에 의한 체계적 추진
- 지역협력단 육성 및 활용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

- 인재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등 S/W 중심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산업 육성

II. 사업 추진 현황

재 정 지 원

- **제1차 3년간('05~'07) 8,200억원 투입** (국비 5,800, 지방비 1,305, 민자 1,096)
  - 지역별로 3년간 평균 120억원 투입

-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 대상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간 20/25/30억원 지원
  - 매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 재선정, 최대 9년까지 지원

- **사업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05년 추진실적 평가 : 22개 우수시군 94.5억원 인센티브 제공
  - '06년 사업계획 점검 : 6개 부진시군 47.5억원 삭감, 11개 시군 경고

III. 사업성과 중간점검

주요성과 1 주민학습조직을 통한 지역혁신 (인제군)

마을리더 양성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의 학습조직화

마을리더 양성

- 월1회 1박2일 합숙 워크샵
- 국내외 우수사례지역 탐방
- 혁신적 농촌 리더 육성(72명)

혁신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연구회 구성
  - 모험레포츠/황태산업/목공예 등 7개 분야
- 공무원/주민/외부전문가 공동참여, 선도사업 추진

주민의 학습조직화

유사 사례 양구군(산채 포럼, 농가교육), 영동군(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영상자료

돌아가기

III. 사업성과 중간점검

주요성과 2 지역협력네트워크를 통한 6차산업 창출 (청도군)

반시(씨없는 감)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융복합 발전

- 신활력혁신센터 중심으로 농가·지자체·농협·협회(조합)·지방대학이 유기적 협조

유사 사례 장수군(지역순환농업추진단), 진도군(홍주명품화사업단)

III. 사업성과 중간점검

주요성과 3 야생녹차 상품차별화를 통한 명차 육성 (하동군)

기업가적 마케팅·그린투어리즘을 연계, 세계적 名茶 육성

- 상품 차별화 : 공동브랜드·포장규격화 등
- 적극적 마케팅 활동 : 하동녹차 포털사이트, 지하철·공항 등에 홍보
- 『차문화센터』 운영 : 녹차문화 체험 및 인지도 제고

생산·고용의 획기적 증대 등 자립적 발전 전기 마련

- '05년도 생산·고용이 전년대비 55%, 69% 증가
  - 생산 ('04) 130 ➡ ('05) 201억원 (55% 증가)
  - 고용 ('04) 97 ➡ ('05) 164명 (69% 증가)

유사 사례 함평군(나비 곤충사업 클러스터 구축), 괴산군(바이오 씨감자 개발 보급)

III. 사업성과 중간점검

주요성과 4 신상품개발·유통구조개선으로 장류산업 혁신 (순창군)

기능성 장류개발·유통구조혁신으로 장류산업의 특화산업화

- 고추·콩·찹쌀 등 원재료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농업생산
  : ('04) 31 ➡ ('05) 609농가
- 대도시 유통망 구축·해외시장 진출(일본·독일) 등 유통네트워크 확충
- 『장류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관광(이대·숙대 등) 유치
  : ('04) 1600 ➡ ('05) 2500명

장류산업이 생산·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

- 생산업체 : ('03) 65 ➡ ('05) 72개소
- 고용인력 : ('03) 500 ➡ ('05) 610명
- 매출액 : ('03) 1,900 ➡ ('05) 2,400억원

유사 사례 금산군(인삼 약초 오감체험형 건강특화사업), 평창군(

성 공 요 인

참여와 혁신을 통한 사업 주진

- 단체장의 사업의지와 주민·외부전문가 등의 헌신적 참여
- 기술개발, 마케팅의 공동학습·정보교류 등 활발한 혁신 노력

1

경쟁력 있는 지역사업 발굴

-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살리는 대표사업 선정
-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2

연관사업의 패키지화로 시너지효과 거양

- 지역특화발전특구(재경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산자부),
  농업클러스터(농림부) 등과 연계

3

IV. 향후 발전과제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

- 지역리더, 사업추진 관계자 교육 강화
- 우수 추진사례 전파, 토론/벤치마킹 (지역혁신박람회)

지역의 기획능력 제고

- 교수·연구원·퇴직공무원 등 전문가그룹으로 『지역협력단』 구성
- 기획·컨설팅·교육 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지표 개발, 인센티브 시스템과 연계
- '05~'07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대상지역 및 사업 재검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과의 연계

- 신활력 창출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간의 상승효과 구현
- 농림부로 사업이관 후, 농촌정책과의 연계·발전

참여정부 신활력사업으로
농촌이 강해집니다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